



◇기필코 돌고야 맞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회두를 풀고 나가면 삼매에 들게 되고 궁극에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마, 꾸준한 수행을 강조하시는 인현스님.

을 듣고, 수식판을 통해 호흡을 익히고, 여럿이서 함께 공부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고, 다른 대중 선방에서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구든지 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제 경험으로도, 잡념이 1분도 앉아 있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잡념이 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초심자들에 있어 잡념이 끊이지 않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실재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나로 모아서 집중하려 하면 할수록 오만가지 생각이 들끓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치는 간단해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호흡으로 돌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회두로 돌리면 되고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한 곳으로 집중하는 순간이 옵니다.

— 잡념이 닦이는 대로 호흡에든 회두로든 돌려놓으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것 말고도 선 수행의 길로 선뜻 들어서지 못하는 데는 한국 불자들의 전통적인 신앙 행태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경전을 보거나 염불을 하면 무언가를 한 것 같고 불보살의 가피를 받을 것 같은데, 선 수행은 아득히 멀어 보이거든요.

▲ 대부분의 불교 신도들은 늘 기도를 하거나 불공을 드리거나 합니

### 일어나는 생각 회두로 돌리세요

### 철저히 비우고 자신 드러내야

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어려운 일들을 겪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는 일이 드물다. 장애가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불공을 드리고 하면서 '좀 도와주세요. 이리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런 중생들을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보살에게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라는 걸 그렇게만 알면 기도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주된 목적은 업장소멸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일이 잘 안되고 남보다 많이 어려움이 닥치고 하는 것은 업장이 많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기도란 밖으로 흔들리는 이 생각을 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경계에 따라 밖으로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부처님과 똑같은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것을 3업이라고 하는데, 입만 열었다고 하면 남을 욕하고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몸으로 온갖 죄업을 짓고 있는 걸 하며 참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보살을 부르고 참회하는 것을 업장 소멸로 여깁니다. 그런데 실로 업장을 소멸함에 있어 가장 빠른 길은 참선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의 삼매가 그대로 쉬고, 온갖

것을 다 놓아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밖으로 모으고 쌓아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놓고 비워서 내 자신의 빛이 그대로 환히 드러나는 것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참선을 하게 되면 겹겹이 쌓아온 업장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참선으로 업장을 없애고 회회하니까 결국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들 강조하는데, 아침에 잠시라도 참선을 함으로써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참선을 함으로써 모든 업을 소멸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스님으로부터 참선 지도를 받은 분들은 일상 생활에서 어떤 배려나 친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 당당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남들과 다른 일이 없으시는 겁니까.

— 긴 시간 동안 초심자라면 귀가 번쩍 뜨일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끝으로 선 수행의 본론이라 할 회두 드는 법과, 이른바 삼매의 경지란 어

떤 상태를 일컫는 것인지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 회두는 문제를 풀 듯이 분석을 하고 머리를 굴려서 해답을 얻는 것이 것이 아닙니다. 주로 거기에 빠지기 쉬운데, 회두라고 하는 것은 '모를 뿐'인 이 마음의 본성을 찾는 작업입니다. 24시간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 마음인데, 내가 내 마음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부처님과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중생일까요.

보는대로, 듣는대로, 아는대로, 믿는대로, 곱다, 사랑스럽다. 또는 하나님이다, 부처님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차별을 하며 내가 내 마음을 흔들어서 중생인 겁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어서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들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물이라도 가만히 두면 오래 안 가서 맑고 깨끗한 물이 되어 삼라만상을 다 비추듯이, 회두를 제대로 들면 회두가 나를 그와 같은 경지로 이끕니다. 그래서 회두가 바로 정념인 것이지요.

좋고 앉았거나, 오만가지들 생각하거나, 회두가 된다고 곱몰하면 이미 그것은 산이 아닙니다. 앉아 있어도 송장이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실재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회두로 돌려야지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성냥을 가지고 불을 켜려고 할 때, 성냥개비를 대충 문질러서는 수심번을 반복해도 불이 꺼지지 않지만 어느 한 순간 힘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불이 켜지지요. 마찬가지로요. 우리 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참선할 때 회두를 끌고 가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생각을 모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근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필코 돌고야 맞겠다는 마음이 회두를 끌고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무념'이 되고요.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무념은 곧 일념입니다. 선종기가 빠르게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날개가 없어서 안보이는 것이 아니라 꼭 차니까 안보이는 것처럼, 일념이 꼭 차면 무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와 나, 혹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생각이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염불도 그렇게 하면 염불삼매, 기도도 그렇게 하면 기도삼매, 독경도 그렇게 하면 독경삼매예요. 그렇게 삼매에 들게 됩니다.

삼매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회두가 나오, 내가 회두인 경지가 됩니다. 일념이 무념이 되고 그것이 회두삼매가 될 때 '확' 하고 성냄에 불이 일어나듯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대답=윤재학 부장 (yunjh@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buddhania.com)

### 회림스님이 쓰는 이력스님

#### ■ '산거지' 정우스님

70년대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는 그런 시기였다. 이러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불교계도 산중불교에서 도심불교로 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러한 변화를 따라서 많은 스님들이 포교에 뜻을 두고 열심히 활동을 했다. 오늘날 그나마 산업사회 속에서 불교가 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이나, 정보화 사회를 운위할 수 있게 된 것이 모두 이때 선각자적으론 활동한 스님들의 피나는 고생 덕분임을 알아야 한다.

십여년 전이다. 인천 주안에 있는 시민회관에서는 중·고등 학생들이 모여서 공연을 했다. 그 큰 관공석에는 빈자리 하나 없이 자리를 다 메웠고, 공연이 하나 끝날 때마다 청중석에서는 열화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자리에 있었던 나는 그 어떤 공연보다 더한 진한 감동을 받았다. 팽팽한 학교생활, 학생 개인의 특성이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밝고 명랑하게 놀 수가 있을까 하는 감동을 받은 것이다.

이날 공연은 영산정사의 중·고등학생회가 주체가 되어 연례행사로 개최하는 것이었다.

#### 시장 상가건물에 법당개설

#### 10여년째 어린이법회 열어

사촌가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능력으로 실시한 공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정우스님이 오랫동안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포교를 해온 성과였다. 정우스님은 스스로 법호를 '산거지'라고 했는데 이는 산에 사는 거지라는 뜻도 있고, 정신이 살아있는 거지라는 뜻도 있다. 산거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스님은 정말 수행자의 정신이 살아 있는 거지로 열악한 한국불교의 토대 위에서 오직 외길, 포교사의 길을 걸어왔다. 어린이 등의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도량, 법당이 필요했다.

그래서 스님은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결단을 내렸다. 그것이 도원동의 도원시장 안에 있는 상가건물의 삼층을 빌려 창건한 법당, 영산정사다. 도심지의 가장 번잡한 장소가 시장이다. 그러한 시장가운데 포교당을 열 것이다. 사찰이라고 하면 그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요한 산사를 생각한다. 그런데 가장 소란한 장소 한 복판에다가 절을 만들고 그곳에서 어린이법회를 열었다.

스님의 주장은 '어린이 법회에서부터 중·고등학교 법회를 거쳐 청년법회에 나오고 그리고 결혼하고 일반신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스님을 따르는 불자들이 가운뎃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 많다. 정우스님이 이 같은 포교를 시작하기도 벌써 수십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불교계는 어린이에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일반신도 법회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찰이 많다. 아니 오히려 70년대 어린이 법회와 중·고등학교 법회가 유행하는 듯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그 열기가 식고 퇴보하고 있다. 포교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포

교가 퇴보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도원동 시장 통에다가 만든 영산정사는 나중에는 제물포 쪽, 옛날 한국전쟁 때 피난민 등이 정착했다는 가난한 동네에다가 천막 비슷한 벚꽃집을 짓고 터를 잡았다. 그렇게 시작한 사찰이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거쳐서 구색을 갖춘 법당이 되고, 유치원도 있는 사찰로 발전시켰다. 일요일이면 몇백명의 어린이와 2~3백명의 신도들이 법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런 중에도 스님은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가능한한 기복불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법회 때 부처님을 불공을 올리고 염불을 하고 축원을 하지만 신도카드를 받지 않는다든지, 4월8일 부처님 오신날 연등을 만들어 갖고 각 신도들 가정에 연등 걸기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돈을 받고 연등을 걸어 주는 것은 안했다. 그러나 등 밑에 이름을 적어 주는 리포표 같은 것이 없어 깨끗했다. 이리다 보니 초파일 행사를 지내고 보면 항상 빛이 남았다. 어떤 사람 보다도 많은 연등을 달았지만 행사비를 충당할 돈도 없었던 것이다.



그림·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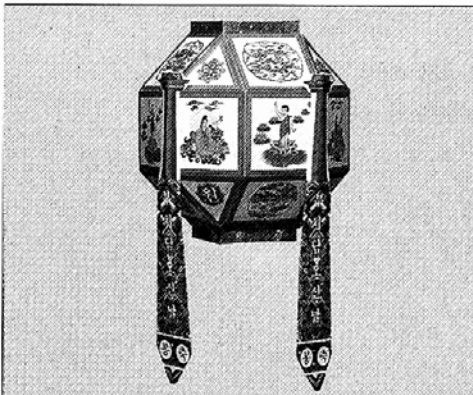
가끔 나는 스님이 사는 포교당을 찾아가 보곤 했는데 돈이 없어서 연등을 사지 못할 때도 있었다. 스님이 거처하는 방은 벽지가 온통 골판지가 나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옷 속에 있는 물이 얼어버리는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스님은 아이들 포교를 위한 돈은 아끼지 않았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포교삼매에 들어 살았던 것이다.

스님의 포교에 대한 열정은 일찍이 어린이 포교에 큰 공적을 남기신 석주 노스님에게까지 인정을 받아 '산거지 스님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포교를 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렇게 몇 십 년이나 고생해서 만든 영산정사를 스님은 하루 아침에 내 놓았다. 벌써 십여년 전의 일이다. 아무런 미련이나 애착 같은 것 없이 인천불교사찰연합회에 회사를 한 것이다. 자신이 주지를 안해도 될 만큼 사찰이 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김포 쪽 농촌에다가 농가주택을 하나 사서 새로운 포교를 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지금은 불교 라디오방송에서 '자비의 전화'에 신행 상담을 하고 있다(스님의 법호는 원광이다). 벌써 세수가 60여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스님의 포교에 대한 열의는 식을 줄을 모른다. 얼마 전 서울 길거리에서 스님을 만났다. 서로 오랜만이라 안부를 묻자, '요즘은 군인들 포교를 많이 한다. 군법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군인 포교가 너무 열악하다'고 여전히 포교만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 가격 동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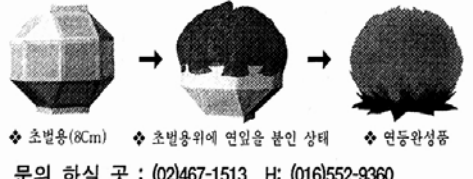


###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인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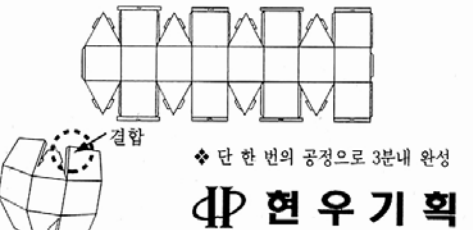


◆ 조립용(8cm) ◆ 조립용위에 연등용 불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467-1513 H: (016)552-9360

###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경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복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정면」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한 다원화된 유동 구조적 가격을 배제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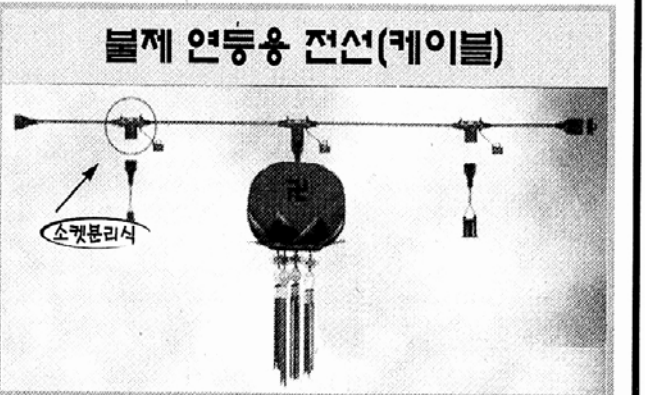
###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 사용 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 규격  
· 동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교리용)
- 안전성 · 작업성 ·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회색시공을 예방  
· 설치 · 수거할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하시면 현수 재사용이 가능

### 전 등 배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함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냄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분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교주전구, 인지전구)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